

■ 역사 속의 이주, 이주 속의 역사 ■

## 침략과 이주: 제1차 십자군과 예루살렘 왕국

홍용진

### I. 지중해에 난입한 새로운 세력

서유럽 중세사에서 십자군<sup>1)</sup>만큼 가장 방대한 참고문헌을 자랑하는 주제는 없을 것이다.<sup>2)</sup> 공식적으로 십자군은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소집한 클레르몽 공의회와 1096년의 제1차 십자군을 시작으로 해서 1272년에 제9차 십자군으로 막을 내린다. 하지만 이 2백여 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다양한 성격의 군사적 원정들이 ‘십자군’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루어졌는지! 십자군이 기독교의 수호를 기치로 내걸었던 만큼 이슬람 뿐 아니라 다양한 이단들도 기독교의 적으로 선포되어 십자군 원정의 대상이 되었다(알비 십자군, 1208-1241). 그것은 또한 교황 반대세력에게 선언되기도 하였다(아라곤 십자군, 1284-1285). 그밖에도 여러 다양한 민중 십자군들이 신앙심의 심화 과정 속에서 곳곳에서 출몰하였다(은자 피에르의 십자군, 1096; 목동 십자군, 1251-1320 등). 또한 지리적으로 보면 북쪽으로는 잉글랜드부터 남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왕국까지, 서

1) 중세에는 현대에서 쓰이는 ‘십자군(프랑스어로 *croisade*, 에스파냐어로 *cruzada*, 영어로 *crusad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행위자보다는 행위를 표현하는 어휘들, 예를 들어 ‘성지를 향한 여정’ 등과 같은 표현이 더 많이 쓰였고 십자군도 이념상으로는 - 물론 실제적으로는 별 차이는 없지만 - ‘신실한 군대’로서보다는 ‘신의 부름을 받은 무장한 순례자’로서 규정되었다: Jonathan Riley-Smith, *The First Crusade and the Idea of Crusading*(New York: Continuum, 2009), ch.4. 한편 십자군 운동에 대한 최신의 종합적인 개설서로는 Christopher Tyerman, *God's War-A New History of Crusades*(London: Penguin Books, 2007) 참조.

2) 미셸 발라, 「십자군에 관한 20세기 역사서술 -프랑스 학계를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16(2005), 199-201.

쪽으로는 포르투갈부터 동쪽으로는 동로마제국까지 라틴 및 그리스 기독교 세계 대부분이 동부 지중해 지역과 현재의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에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물론 14-15세기에도 십자군의 추억과 그림자는 기독교 세계에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14세기 각국의 분열과 대립이 십자군 조직의 걸림돌이 되었다면 오스만 제국의 성장 및 동로마제국의 쇠퇴·몰락은 다시 한 번 십자군의 환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십자군의 방대하고도 기나긴 역사에서 그나마 기독교의 대의에 걸맞으면서 유일하게 성공한 원정은 최초의 십자군인 제1차 십자군뿐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성공은 부분적으로는 서남아시아에 새롭게 등장한 투르크족의 세력팽창과 이슬람 세계의 분열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물론 애초에 동로마황제가 이제 막 동로마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로마총대주교, 즉 이른바 교황에게 군사원조를 요청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슬람교는 애초부터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순례를 막지 않았으나 정치적 무질서가 커지면서 순례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이 기회를 이용해 동로마황제 알렉시오스 1세 콤네노스(1081-1118)는 서유럽의 군사력을 빌려 살जू크 투르크가 점령한 아나톨리아 지역을 평정하고자 했다. 동로마제국 입장에서는 야만적이고 그릇된 믿음을 지닌 라틴 기독교인들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기독교도로서 자신들의 세력확장에 이용하고자 했다.<sup>3)</sup> 그러나 이것은 오판이었다.

사회와 경제 차원에서 안정기를 지나 폭발적인 발전기를 맞이하고 있던 서유럽의 라틴기독교세계는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동지중해 지역으로 진출해 나가기 시작했다. 기독교적 대의나 예루살렘 정복이라는 요소들을 제외한다면 이들의 지중해 진출은 서유럽의 역사에서 매우 괄목할만한 결과들을 산출하였다. 하지만 동로마제국과 이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십자군은 7세기 이래로 동부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에 형성된 세력경쟁에 갑작스럽게 서유럽인들이 난입하여 예기치 못한 복잡한 상황들을 만들어 낸 사건이었다. 동로마제국 황제는 이들을 살जू크 투르크

---

3) 토머스 F. 매든, 『십자군』, 권영주 옮김(루비박스, 2005), 31-32[Thomas F. Madden, *The New Concise History of the Crusades*(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5)].

와의 전쟁에 이용할 심산이었지만 프랑스의 봉건제후들, 이른바 ‘프랑크인’들은 동부지중해에 진출(침략)하자마자 아나톨리아 반도 아래로 이어지는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에 4개의 라틴 기독교 십자군 제후국을 세웠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살जू크 투르크의 영역이 아닌 파티마 왕조의 영역이었다.

## II. 제1차 십자군과 4제후국들

가장 먼저 십자군 원정에 응하여 군대가 조직된 지역은 다름 아닌 프랑스였다. 특히 전형적인 지방분권적 봉건제후들의 상무적 기질이 살아 숨쉬던 북부 프랑스지역의 호응도가 컸다. 4개의 부대 중 3개 부대가 플랑드르 및 로타링기아, 샹파뉴, 노르망디, 베르망두아 제후들이 이끄는 북부 출신이었고 나머지 1개 부대가 툴루즈 백작이 이끄는 남부 출신이었다. 즉 십자군이라는 장식을 제거하고 본다면 제1차 십자군은 북부 프랑스 봉건제후들 연합군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머나먼 이국땅에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무작정 쳐들어가서 얼떨결에 정착을 한, 세계사적으로 독특하고도 기이한 사건이었다.<sup>4)</sup>

이 당시 가장 후진지역이었던 서유럽 봉건기사들의 비문명적 행태들에 대한 사례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가장 먼저 놀란 이들은 이들을 불러들인 전통적인 문명국인 동로마제국이었으며 그 다음은 신흥문명국으로 이들에게 패퇴당한 무슬림들이었다. 문제는 이들의 전쟁이 매우 잔혹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기나긴 여정에 따른 육체적 피로와 심리적 이질감, 그러나 더욱 커져만 가는 열에 들뜬 신앙심은 이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흥포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동로마제국 사람들

4) 십자군에 대한 아랍-이슬람인들의 생각은 아민 말루프의 저서에서 잘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아랍 사람들은 십자군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프랑크인들의 전쟁 내지는 침략이라고 말한다. 프랑크인들이라는 말이 지시하는 바는 지역, 저자들,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Faranj, Faranjat, Ifranj, Ifranjat ... 이 명칭들을 하나로 묶는 뜻에서 나는 좀 더 단순한 형태를 골랐다. 오늘날 서유럽인들을 가장 대중적으로 부르는 말로, 특히 프랑스인들을 지칭하는 프랑크(Franj)다.”(『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 김미선 옮김(아침이슬, 2002), 11).

이나 무슬림들이 보기에 이들은 최소한의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당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고드프루아<sup>5)</sup>를 비롯한 모든 제후들이 충성서약을 마쳤을 때, 한 귀족이 건방지게도 황제의 옥좌에 앉았다. 전부터 라틴인들(프랑스인들)의 거만한 기질을 알고 있던 터라 황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참고 있었다. 그러나 보두앵 백작은 그 귀족을 일으켜 세우며 심하게 꾸짖었다.”<sup>6)</sup>

- 안나 콤네나, 알렉시오스 1세의 딸(동로마제국 공주) -

“이제 프랑크족의 이상한 의술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다. (...) 그러는 동안 프랑크족의사가 당도했는데, 저보고 환자치료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사에게 물었어요. ‘한쪽 다리만 갖고 살겠소, 아니면 양다리 모두 지닌 채 죽겠소?’ 기사는 의다리로 사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말했어요. ‘건강한 기사 한 명과 날이 선 도끼 한 자루가 필요해요!’ 둘 다 준비가 되고 나도 입회하자 의사는 환자의 한쪽 다리를 나무도막 위에 올려놓고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도끼로 단번에 이 사람 다리를 내리치도록 해!’ 나는 기사가 첫 번째 도끼를 내리치는 것을 보았는데 다리는 잘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내리치자 골수가 쏟아지면서 환자는 즉사했지요. 다음으로 의사는 한 부인을 진찰하더니 부인의 머릿속에 악마가 들어 있다고 선언하고 우리더러 그녀의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했습니다. (...) 그녀가 열이 더 오르자 의사는 악마가 이미 여자의 머릿속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는 면도칼을 집어 들고 그녀의 머리를 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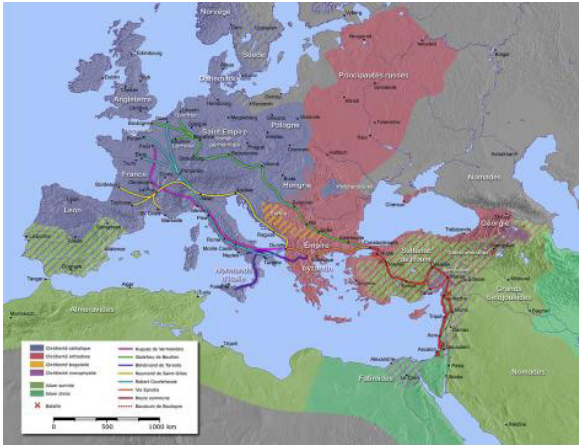
5) 고드프루아 드 부이용(Godefroy de Bouillon, 1054-1100). 바스르타링기아 공작으로 카롤루스 왕가의 혈통을 물려받았다. 십자군 원정 제후들 중 가장 서열이 높았으며 예루살렘 점령 후 예루살렘 왕국의 왕위를 제의받지만 거절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동생 보두앵(Baudouin de Boulogne)이 초대 예루살렘왕(재위 1100-1118)으로 즉위한다.

6) 조르주 타트, 『십자군 전쟁-성전탈환의 시나리오』, 안정미 옮김(시공사, 1998), 158(안나 콤네나 Anna Comnena, 『알렉시아드(Alexiad)』 10권: [http://www.fordham.edu/halsall/basis/Anna Comnena-Alexiad10.asp](http://www.fordham.edu/halsall/basis/Anna%20Comnena-Alexiad10.asp) 참조)

침략과 이주: 제1차 십자군과 예루살렘 왕국

자가 모양으로 절개했는데, 한가운데는 너무 깊이 살이 벗겨져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어요. 그는 머리 전체를 소금으로 비벼냈고, 부인은 그만 죽고 말았어요.”<sup>7)</sup>

- 우사마 이븐 문키드(샤이즈르의 총독) -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모두 모여 본격적인 원정에 돌입한 후 아나톨리아 반도부터 이들이 지나가는 길목은 당대 동로마제국인들이나 무슬림들이 보기에도 충격적인 대규모 파괴와 살상, 야만과 잔혹으로 점철되었다.<sup>8)</sup>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을 충격이 빠트린 사건은 바로 1099년 예루살렘 함락과 더불어 벌어진 대학살 사건이었다. 2주 동안의 공성전에서 승리한 십자군은 7월 15일 드디어 ‘신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고 이내 도시를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여 일반 양민들을 대학살하기 시작하였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십자군은 신의 뜻이라는 열에 들뜬 광기로 차마 말로 하기 힘든 잔혹하고도 엽기적 행각

7) 조르주 타트, 160(우사마 이븐 문키드Usama ibn Munqidh, 『인생의 교훈』). 우사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군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은 아민 말루프의 저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 7장(에미르의 눈에 비친 야만인들)).

8) 아민 말루프,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 3장(마라의 식인종).

들을 발작적으로 벌려 나갔다.<sup>9)</sup>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다. “십자군측이나 이슬람측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성전 직후 행해진 대학살에 대한 끔찍한 묘사는 모두 중세인들의 과장법이 아닐까? 이러한 입장에서 토머스 F. 매든과 같은 역사가는 예루살렘 정복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십자군은 예루살렘 주민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몰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에 공통되는 당시의 규범에 따라 정당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후에 전해진 매우 과장된 이야기들과는 달리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입성 후의 혼란 속에 이슬람교도들과 유대인들이 다수 죽임을 당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목값을 치르고 자유를 살 수 있었거나 성 밖으로 추방당한 사람들도 많았다.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무릎까지 차오는 피바다로 뒤덮였다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과장이었다. 중세 사람들은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sup>10)</sup>

그는 또한 저서의 말미에 현재의 갈등을 과거로 투영시켜서 과거를 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십자군은 정녕 경건한 신의 군사들이었으며 이슬람은 분열되어 있어서 이들의 진출에 크게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후에 벌어진 제4차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에 따른 동로마제국의 쇠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 그는 오히려 제4차 십자군에 의해 오히려 동로마제국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sup>11)</sup> 일견 그는 과거에 현재를 투영하는 시각을 배제하고 엄격하게 확인 가능한 사료들만을 취하여 역사서술의 객관성 유지에 온 힘을 쓰고

9) 이에 대한 기록은 이슬람측뿐만 아니라 당시 1차 십자군을 따라갔던 푸셰 드 샤프트르(Foucher de Chartres, 1055/60-1127)의 연대기에도 잘 나와 있다. Fulcher of Chartres, *A History of the Expedition to Jerusalem 1095-1127*, Frances Rita Ryan (tra.)(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73) 119-122. 예루살렘 대학살에 대해서는 Christopher Tyerman, *God's War*, 157-161; 사이먼 시백 몬티피오리, 『예루살렘 전기』, 유달승 옮김(시공사, 2011), 359-363.

10) 토머스 F. 매든, 『십자군』, 79-80.

11) 토머스 F. 매든, 『십자군』, 360-368.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더 던져보아야 했다. “예루살렘 대학살에 대한 끔찍한 장면들은 왜 기독교도나 이슬람교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과장되게 묘사되었을까?” 예루살렘 입성당시 실제로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의 목록을 만들어 ‘객관적’ 역사서술을 시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제는 실제로 또 정확히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보다는 예루살렘 입성당시 십자군의 행위들이 잔혹하고 엽기적인 것으로 비춰졌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묘사가 과장되었다는 자체는 규모나 숫자의 차원을 떠나 십자군의 행동들이 당대인들의 입장에서라도 납득하기 힘든 잔혹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대학살극을 마지막으로 파티마왕조의 영토였던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에 4개의 기독교 제후국들이 들어섰다. 참전했던 제후들 각자의 공명심과 명예, 이기심이 분출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에게 익숙했던 봉건사회의 틀이 습관적으로 작용해서 하나의 통일적인 왕국이라기보다는 4개의 서로 다른 봉건제후국들이 생뚱맞게 이 지역에 건설되었다. 1098년부터 1099년까지 2년 동안 차례대로 에데사 백작령, 안티오크 공령, 트리폴리 백작령, 예루살렘 왕국이 봉건적 위계에 따라 건설되었다.



- ◀ 4개의 십자군 제후국  
 에데사 백작령,  
 안티오크 공령,  
 트리폴리 백작령,  
 예루살렘 왕국

### III. 이주와 통합의 문제

4개의 십자군 제후국들이 급작스럽고도 과격한 폭력으로 멀고도 낮은 땅에 들어섰지만 문제는 향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있었다. 살जू크 투르크와 파티마왕조, 동로마 제국의 경쟁관계 속에 들어 온 낮은 이방인들은 이 세 토착세력들, 특히 이슬람 세력들의 견제를 받을 것이 분명해 보였다. 결국 1150년 에데사 백작령이 쟁기왕조에 의해 가장 먼저 몰락했고 나머지 세 제후국들도 13세기 후반 홀라구 울루스(일칸국), 마물르크 왕조, 아유브왕조라는 거대 왕조들의 각축전 속에서 위축되어 나갔다. 결국 1291년에는 예루살렘 왕국의 마지막 도시였던 아크레가 함락되면서 십자군 제후국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200여 년의 역사 동안 이 제후국들은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아니면 이 제후국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십자군 운동에 대한 대부분의 역사서술은 정치사적 전개과정과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이방인 정복자들의 이주과정과 통치, 그리고 이들과 토착민들과의 관계설정 등에 대한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주제를 이루게 된다.<sup>12)</sup>

과연 십자군 제후국들에서 서유럽 출신의 이주지배층과 토착민들 간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20세기 전반까지 연구들은 십자군 제후국들이 나름대로 잘 통합된 사회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20세기 후반의 연구들은 이를 프랑스 식민주의나 제국주의적 입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배층인 서유럽 십자군과 피지배층인 토착민 사이의 철저한 분리와 거리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는 성채를 중심으로 한 도시와 농촌의 지리적 분리와도 일치한다고 보았다.<sup>13)</sup> 하지만 이에 대해 엘렌블럼은 십자군과 토착민 사이의, 또 도시와 농촌 사이의 혼합적 성격을 이야기 한다. 십자군 지배층은 성채에만 틀어박혀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

12) Ronnie Ellenblum, *Frankish Rural Settlement in the Latin Kingdom of Jerusale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Christopher Tyerman, *God's War*, ch. 7(212-240).

13) Ronnie Ellenblum, *Frankish Rural Settlement*, 3-11.



동방정교회를 믿는 농촌마을에도 일정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물론 기독교도와 무슬림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었다. 십자군이 지배층이긴 했지만 제후국들 내부에 거주하는 피지배자들의 경우 라틴 기독교도, 동방정교도, 유대인, 무슬림이 지역에 따라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중 하나의 종교만으로 결집된 마을도 있었고 상업적으로 변화하여 여러 종교가 공존을 이루고 있는 곳도 있었다. 즉 제1차 십자군의 단순하기 그지없는 기독교도와 비기독교도의 구분법은 이후 이 지역의 통치에 전혀 적용될 수 없었다.

십자군 제후국들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기독교인들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거나 무슬림일 수밖에 없었다. 지배층은 정치적으로 주변의 왕이나 술탄들과 계속해서 투쟁을 벌였지만 그렇다고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접촉이 배타적인 방식으로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12세기에 예루살렘 왕국의 성직자인 기욤 드 티르(Guillaume de Tyr)는 기독교 귀부인들이 동향의 의사들보다는 이슬람이나 유대인 의사들을 더 신뢰하고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sup>14)</sup> 기독교 제후들은 서유럽 봉건사회의 틀을 이식하려고 하면서도 무슬림들과 유대인들, 나아가 베두인족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통치제도들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서유럽의 라틴기독교세계를 떠나 멀리 십자군 제후국까지 이주하는 사람들은 십자군이나 순례자인 것만은 아니었다. 농민들 중에서도 새로운 땅을 찾아 온 자들이 있었고 지중해 교역의 발전은 다양한 상인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였다.<sup>15)</sup> 새로운 십자군 제후국들에 정착한 서유럽인들의 지리적 출신은, 대다수가 프랑스왕국과 이베리아 반도에서 오긴 했지만, 매우 다양했으며 멀리 아이슬란드나 러시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14) Christopher Tyerman, *God's War*, 216.

15) Pierre Racine, "Une migration au temps des croisades: les voyages de pèlerinage", Michel Balard, Alain Ducellier(dir.), *Migrations et diasporas méditerranéennes (Xe-XVIIe siècles)*(Paris, Publications de la Sorbonne, 2002). pp.459-473; Pierre-Vincent Claverie, "Un exemple de transfert logistique lié à la défense de la Terre sainte: le passage en Orient de Guillaume de Roussillon(1275)", *ibid.*, pp. 475-483; Mohamed Ouerfelli, "Les migrations liées aux plantations et à la production du sucre dans la Méditerranée à la fin du Moyen Âge", *ibid.*, 485-500.

도 있었다. 즉 십자군 제후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기독교나 십자군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곳이 아니었다. 폭력과 잔혹함을 서슴지 않았던 의기양양했던 십자군은 자신들의 외골수 신념들을 내려놓고 현실에 순응해야만 했다. 무슬림이 아무리 싫어도 전처럼 마구 죽일 수는 없었으며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공생해야만 했다. 서유럽의 진출과 더불어 지중해를 둘러싼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에 집결하게 되었다.

구성원들의 혼종성, 그것은 십자군 제후국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개개인들의 공존을 의미하며 정책적인 분리정책, 아파르트헤이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성의 공존은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배태할 유기적 관계로 발전해 나갔는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만이 가능할 뿐이다. 공존은 공생이 되지 못했으며 접촉은 접변이 되지 못했다. 다양한 원자들의 혼합은 있었으나 융합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러한 평가는 비단 현대 연구자들만의 것이 아니다.<sup>16)</sup> 이는 이미 14세기 초에 프랑수아 주도의 새로운 십자군 원정을 주장했던 피에르 뒤부아(Pierre Dubois)의 생각이기도 했다. 이미 성지를 빼앗겨 버린 후 다시 십자군을 제창하며 그는 정복만큼이나 정착과정과 정착을 위한 교육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sup>17)</sup> 즉 십자군 제후국이라는 전대미문의 삶의 공간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공존했으나 그 요소들이 역동적이고도 유기적으로 밀접한 상호작용을 일으키지는 못한 곳이었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라틴기독교는 그리스 정교회와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지만 각자가 지닌 교조주의는 서로의 입장차만을 반복해서 확인할 뿐이었다.<sup>18)</sup> 이러한 점에서 공존은 진정한 의

16) Christopher Tyerman, *God's War*, 239-240.

17) Ch.-V. Langlois, ed., *De Recuperatione terre sancte. Traité de politique générale par Pierre Dubois*(Paris, 1891), pp. 47-92(성지수복 후 이루어져야 할 현지어 교육, 학교건립, 의료교육, 법질서의 수립, 이민장려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18) Andrew Jotischky, "The Frankish encounter with the Greek Orthodox in the Crusader States - The case of Gerard of Nazareth and Mary Magdalene", Michael Gervers and James M. Powell (ed.), *Tolerance and Intolerance: Social Conflict in the Age of the Crusades*(Syracuse University Press, 2001), 100-114.

미의 공생관계를 이루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된 이유와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배층이 현지 언어를 익힐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군의 토착화는 매우 힘들었다. 현지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준비가 되어있던 농민이나 상인의 경우 뿌리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말이다. 또한 수많은 순례의 물결이 만들어 낸 국경의 개방성은 이주행위를 더욱 유동적으로 만들었다. 안정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서유럽인들과 아랍인들 사이의 관계는 행정적이거나 개인적일 수는 있어도 절대 공동체적이거나 문화적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sup>19)</sup>

#### IV. 서유럽의 새로운 이방인: 십자군 제후국

예루살렘이라는 기독교적 상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의 다양하고도 방대한 유동성, 이것이 바로 십자군 제후국, 특히 예루살렘 왕국의 정체성 아닌 정체성을 구성했다. 사람들을 모으는 이유도 예루살렘이라는 이유이지만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유도 그곳이 예루살렘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패턴은 동부 지중해의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성격 또한 변화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친구들에 비해 보다 개방적으로 변해갔으며 이러한 성격은 이 지역에서 태어난 ‘프랑크인’ 2세대의 경우 특히 두드러졌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먼저 십자군 제후국에는 서유럽식의 정태적이고 위계화된 세계가 아닌 동적이고 위계를 넘나드는 세계가 형성되었다. 서유럽에서 기도하는 자와 싸우는 자, 일하는 자라는 세 위계가 현실적 힘을 발휘하는 이데올로

---

19) Christopher Tyerman, *God's War*, 228-238. 그렇기 때문에 피에르 뒤부아는 성지를 수복한 후에 여기에 파견할 이주민들에게 라틴어 교육 후 그리스어나 아랍어, 또는 다른 동양어들을 익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Quibus sic peractis pueri mutent locum, et in alio studio in logicalibus incipient doceri, simulque in greco, arabico vel alio ydiomate quod provisosores duxerint eligendum, in lectura cujus ydiomatis novi, in figuratis vocabulorum et ordinatione illorum quoad gramaticalia, prio doceantur.”(강조필자)

기로 뿌리를 내려가는 바로 그 시점에<sup>20)</sup> 십자군 제후국에서는 이 이데올로기를 무화시키고 위계를 넘나드는 관행들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십자군 제후국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오랫동안 살아 온 자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봉건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틀에 맞추어 살아가는 서유럽인들에게 이질감을 느끼게 하였다. 그들은, 여전히 기독교도였지만, 너무 멀리 너무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유럽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새롭게 정복한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사안들은 고향의 사회적 규범들을 상대적인 것, 나아가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애초에 기사들이 수도사의 계율을 부여받은 마당에 농민이 칼을 들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싸우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되고, 일하는 자는 싸우는 자가 되었다. 나아가 십자군 당시에 조직된 여러 기사단들은 자금 확보를 위해 스스로없이 금융업에 진출하여 일하는 자의 위계까지 넘나들었다. 13세기 후반에 오면 십자군 제후국과 십자군은 규범이나 가치관의 차원에서 더 이상 서유럽 기독교 세계와 양립하기 힘들어져 갔다. 봉건제가 쇠퇴하고 왕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던 프랑스에서는 세 위계의 명확한 구분과 이 세 위계들이 조화롭게 이루어내는 정치적 통일성과 단일성은 새로운 이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프랑스인들이 볼 때 이 동방의 프랑크인들은 분열적인 봉건적 성향과 문란한 위계로 점철된 자들로 이들이 예루살렘을 상실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여겨졌다.<sup>21)</sup> 필리프 4세가 프랑스 내에서 성전 기사단을 해체하기 직전 상황이 이와 같았다.<sup>22)</sup>

또 다른 예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참된 종교라는 서유럽인들의 생각이 이 지역 출신들에게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20) 조르주 뒤비, 『세 위계: 봉건제의 상상세계』, 성백용 옮김(문학과지성사, 1997).

21) Sylvia Schein, "The Image of the Crusader Kingdom of Jerusalem in the Thirteenth Century", *Revue belge de philologie et d'histoire*, t.64, fasc.4(1986), 704-717.

22) 안상준, 「템플기사단 해체와 필리프 4세」, 『프랑스사 연구』 28(2013.02), 5-28.

가장 잘 보여주는 자는 1130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티르(Tyr)<sup>23)</sup>의 대주교가 된 기욤 드 티르였다. 애초부터 다양성이 공존하는 동부지중해 문화에서 성장한 그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를 배타적으로 적대시하지 않았다. 그에게 여러 종교들의 공존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지역 삶의 전제조건이었다. 그가 볼 때 유대교나 이슬람교 또한 기독교와 같은 신을 모시는 유일신교였다. 그는 이슬람교를 무조건적으로 악마화하기보다는 그 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슬람교를 그릇된 예언자가 만든 기독교 분파로 파악했다. 나아가 그는 교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 아랍인들 정치공동체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이들 또한 외부의 부당한 공격이나 침략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전쟁을 수행할 권리를 마땅히 지녔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이슬람교도들의 정당방위권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정당한 전쟁론으로 정당화된다. 또한 예루살렘 왕국을 위협하는 이슬람 왕국들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누르 앳딘(Nūr ad-Dīn)이나 살라흐 앳딘(Ṣalāḥ ad-Dīn)과 같은 이슬람 지도자들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군들이 현지 사정을 잘 모른 채 자신들만의 신념만을 고집하며 갖은 학살을 자행하는 데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sup>24)</sup> 물론 기욤 드 티르의 생각이 예루살렘 왕국 내 프랑크인 2세들 모두의 생각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지역의 종교지도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 정도 유연한 종교관과 그에 따른 생활관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십자군 제후국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가? 1차 십자군의 부정적 성격을 연장시켜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이후의 상황이 너무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들로 요약해보자. 먼저 서유럽 기독교인들의 폭력과 잔혹함은 서남아시아의 뒤엎힌 상황

23) 아랍어로는 “수르Sour”라 하고 동로마제국에서는 그리스어로 “Tyros”라고 지칭했다. 적어도 십자군 제후국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곳에 정착했던 프랑크인들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영어식 표기인 “Tyre(중중 ‘티레’라고 한국식으로 표기된다)”가 아닌 “티르Tyr”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24) R. C. Schwinges, “William of Tyre, the Muslim enemy, and the problem of tolerance”, M. Gervers and J. M. Powell (ed.), *Tolerance and Intolerance*, 124-132; 페르디난트 자임트, 『중세, 천년의 빛과 그림자-근대 유럽을 만든 중세의 모든 순간들』, 차용구 옮김(현실문화, 2013), 401-402.

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군 제후국이라는 특이한 혼종적 공간을 창출해 냈다. 하지만 소수의 정복자들과 유동적인 서유럽인들은 토착민들과의 동화 및 공생에 실패한, 분리도 동화도 이루어지기 힘든 원자화된 사회를 만드는 데 그치고 말았다. 그럼에도 이들이 겪은 타지에서의 생활과 경험들은 이들을 서유럽세계의 새로운 이방인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게르만인들이 로마문화에 보였던 동화의 의지도 없었지만 소수 지배계급의 수세적 상황으로 인해 로마인들이 게르만인들에게 보였던 분리의 전략도 펼칠 수 없었다. 그들은 낮은 공간에 급작스럽게 들이닥친 이주민들이었지만 한 세대가 지나자 기독교 세계에도 이슬람 세계에도 전적으로 속하기 힘든 이질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다양한 이주와 디아스포라의 물결에서 새롭고도 문제적인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sup>25)</sup>

고려대, hadrianus@daum.net

---

25) 미셸 발라르와 알랭 뒤셀리에의 주도로 개최된 1999년 콜로키움의 분과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지중해의 아르메니아 이주자들과 그리스인들, 2) 흑해의 이주자들, 발칸반도와 아나톨리아의 공간들, 3) 이탈리아, 마그레브, 그리고 대서양, 4) 서양과 동양. 흑해지역, 발칸반도와 아나톨리아 반도,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동부지중해 지역에서는 이미 십자군 이전부터 다종 다양한 이주와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유럽세계는 십자군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이 커다란 물결에 동참할 수 있었다. Michel Balard, Alain Ducellier(dir.), *Migrations et diasporas méditerranéennes*.